

베이다이허(北戴河)의 덩샤오핑

-삼면이 바다로 ‘열린’ 대한민국, ‘바다수영’을 전국체전 종목으로, 해양 명품브랜드로!-

고려대학교 해운·조선·물류·수산(바다) 최고위과정 김연빈
2020. 10. 7(수). 19:00~19:30

I. 바다로 ‘둘러싸인’ 대한민국

1. 바다에 갇힌 대한민국

1.1 해방과 남북 분단으로 사실상의 섬나라

- 강요된 해양화, 중화·대륙으로부터의 해방
- 압축성장과 압축 해양화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

1.2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 부족, 국가적 비전과 어젠다 부재, 협력 시스템 미비

- 삼면이 바다로 ‘둘러싸인’ 우리나라
- 세월호 이후 국민의 바다 기피현상 더욱 심화, 한진해운 파산 방관

2. 바다로 향한 작은 몸짓

2.1 ‘해양교육문화법’ 제정(2020.2.18. 제정, 2021.2.19. 시행)

- 국회해양문화포럼 정책세미나 개최(2019.9.24. 국회)
 - “해양교육·문화 활성화법” 제정과 필요성 공청회
 - 국회해양문화포럼(김영춘·김한정·오영훈·송영길·윤준호), 해수부 장관, KMI 원장, 해양산업총연합회장, 수산경영인회장, 국립해양박물관장 등 주요 인사 총 참석
-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(약칭: 해양교육문화법) 제정
 -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,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
 -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,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, 해양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, 지역해양교육협의회 구성·운영,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등

2.2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민운동 전개

- 남북분단으로 사실상 섬나라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해양에 있지만,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소외,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운동에 국민의 관심·지지 필요
- '해양이 우대받고 해운이 융성하는 나라 만들기 정책 국민운동'(2020.7.24, 부산)
 -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, 한국선주협회, 부산항발전협의회, 한국해대·목포해대 등 해양 관련 업계·학계·시민단체 대표 16명 참여
 - 해양세력을 결집하고 해양수산 관련 정책을 발굴,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전개

2.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(2029.5.15. 관계부처 합동)

- 2023년 해양레저관광객과 섬 관광 방문객 각각 연 1,000만 명을 달성하고, 해양 레저관광분야에서 5년간 3천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
- 해양레저스포츠의 기본인 '바다수영(OWS)'에 관한 언급 일절 없음

II. 국가 지도자와 해양철학

1. 《해양책략》과 《탁월한 사유의 시선》

1.1 홍승용의 《해양책략》

- 한국은 반도 국가로 '심장부 이론'과 '해양력 이론'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. '림랜드(주변부) 이론'이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공간
 - 해양 분쟁은 '영토분쟁, 경제분쟁, 자원분쟁'이라는 분쟁의 일반적 특성에 '역사 분쟁과 도서분쟁'을 더한 다섯 가지 복잡성 내포
 - 반도국가로서 바다현장과 해양지정학에 맞는 국가해양책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
- 해양책략의 핵심은 방향성과 정체성
 - 방향성은 '우리의 과업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?'
 - 정체성은 '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정책은 무엇인가?'
- 국가나 기업은 지도자가 갖는 시선의 높이와 거리만큼 성장하고 발전
 - 정치지도자와 기업 CEO는 해양 개척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 '호기심'과 도전, 전문가 집단지성 축적, 이를 추진하려는 국민들의 통합의지를 묶고 키워야 함.
 - 기존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느끼고 관념이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해양책략

- 한국의 세계적 지위 확보는 ‘해양화(Oceanization)’와 관련되어 있으며, 해양화는 한국 역사의 올바른 권리이자 의무
 - 국가해양전략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해양 교육. 국가를 이끌 인재들에게 해양전략의 교육이 중요

1.2 최진석의 《탁월한 사유의 시선》

- 철학은 무엇을 ‘배우는’ 것이 아니라 스스로 ‘생각하는’ 것. 즉 철학이란 스스로 삶의 인격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, 한마디로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갖는 것
 - 직접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해놓은 생각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가치관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종속되며,
 -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는 방향성을 상실하게 됨.
-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한 철학의 4단계
 - 부정(否定),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다
 - 선도(先導), 시대의 흐름을 포착하다
 - 독립(獨立), 익숙한 나로부터 벗어나다
 - 진인(真人), 인격적으로 참된 나를 찾다
-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, 생각의 깊이가 국가의 깊이
 - 종속적 사고의 ‘따라하기’로는 선진국 진입 불가
 - 주체적 사고와 선도적 실행이 필요

2.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참모의 해양전략(해양철학)

2.1 바다를 사랑하고 체험한 서양의 지도자

- 알렉산더 대왕, 표트르 대제, 시어도어 루즈벨트(TR), 케네디, 드골, 푸틴
- 시워드의 알래스카 매입, 알프레드 마한의 하와이 병합, 마샬 플랜

2.2 베이다이허(北戴河)에서 바다수영을 즐긴 덩소핑과 시진핑의 일대일로

- 덩샤오핑은 평생 바다를 사랑했다. 중국 건국의 주역 마오쩌둥이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을 즐겼다면 덩샤오핑은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수영을 좋아했다. 헤엄칠 때 마오쩌둥의 시선이 내륙을 향했다면 덩샤오핑의 눈길은 바다 수평선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.
- “각막은 기증하고 시신은 해부한 뒤 화장해 바다에 뿌려 달라.” 중국 개혁 개방

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의 유언이다. 1997년 3월 2일, 오색 꽃잎에 싸인 덩의 유해는 그렇게 중국 동남부 앞바다에 뿌려졌다.

2.3 바다를 지키고 개척한 한국의 지도자

- 이승만의 평화선, 박정희의 조선, 김영삼·김대중·노무현의 해양수산부
- 이명박의 해수부 해체, 박근혜의 해수부 부활과 세월호·한진해운

2.4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 리더십은? 문성혁 장관의 해양책략은?

- 덩샤오핑 같은 지도자, 알프레드 마한 같은 참모를 기다린다.

Ⅲ. 선진 해양강국 진입을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대전환과 과감한 실행

1. 주체적 사고로서의 <삼면이 바다로 ‘열린’ 대한민국> 가꾸기

1.1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

- 일상화·표준화·고착화한 ‘바다로 둘러싸인’-국회 공청회에 3번, 법안에도 등장
- 일본도 ‘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(四面を海に囲まれた海洋国家)’ 등으로 표기

1.2 삼면이 바다로 ‘열린’ 대한민국

- 바다를 둘러싼 발상의 전환(사례)
 - <거꾸로 된 세계지도>(김영춘 해수부 장관, 2017), <<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>>(김재철, 2000)
 - 국가기념일 ‘섬의 날(8월 8일)’ 제정(2018), 울릉도 기상통보 시 포함(2020.8)
 - * ‘대한민국 동쪽 땅 끝’→‘독도, 대한민국 영토의 시작’ 운동(김연빈, 2007)
- 생활 속의 발상의 전환
 - 지하철 개찰구(개방식, 폐쇄식), 열려있는 화장실문, 닫혀 있는 지하철 차량 연결 통로(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시 피해 가중), 닫혀 있는 인사계 사무실

2. 실천적 과제로서의 바다수영 전국체전 정식종목 지정과 해양명품 브랜드화

2.1 바다수영(OWS), 전국체전 정식종목 지정 추진(해양수산계가 주도)

- 2008 베이징올림픽부터 올림픽 정식종목 지정
 - 일본, 2015년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(5km), 올림픽 출전(2012, 2016, 히라타)
 - 중국, 2019 FINA 광주세계수영 OWS 우승(여자부 10km)
 - 우리나라, 2019 광주세계수영과 마스터즈 수영 OWS를 여수항에서 개최
 - 1개월 전에야 국가대표 선발. 본선의 추태. 유치 지자체와 수영협회 소통 부재
 - 마스터즈 참가 저조(520명에 불과하고 한국인은 178명)
- 해양수산부장관, 바다수영 전국체전 정식종목 지정 추진 선언(문체부 사전 협의)
 - 부처간 업무의 벽을 타파하고 해양수산부의 업무 영역 확대 및 발굴
 - 부처간 장벽을 타파한 적극행정 사례
 -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창설(2006.9, 해수부-건교부)
 - 바다수영협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(2005.5, 해수부-문체부)
 - 해외이사화물협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(2007.7, 해수부-건교부)
 - 한국종합물류연구원(원장 정필수) 사단법인 설립 허가(2005.5, 해수부 내)
 - 오거돈 해수부장관,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발언(2005.11)
 - * 바다수영 전국체전 정식종목화 건의 기고(4회) : 남해안경제신문(2019.8.17.), 한겨레신문(2019.9.3.), 한국해운신문(2019.9.20.), 현대해양(2019.9월호)

2.2 바다수영(OWS), 2020 도쿄올림픽 출전 추진

- (올림픽 전후)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국가에 OWS 출전권 부여 방안 제안
 - IOC, FINA 상대로 스포츠외교-일본, 카타르 등과 공조, 한일 관계 개선 기여
 - * 지난했던 태평양 심해저광구 등록 사례 참고

2.3 해양수산계가 OWS 육성·발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

- 해양스포츠제전(문체·해수 공동, 8월)에서 전국체전(10월) OWS를 개최
- 해양수산계 공기업·단체 OWS팀 육성(PA, 공단·공사, 수협·해운조합 등 연합)

2.4 바다수영의 생활화·전국화·해양명품 브랜드화

- 1청·1시군구 1대회(시군대회), 1시도 1대회(광역대회), 전국대회(전국체전, 선수권)
- 이벤트 수영대회 창설 및 해양명품 브랜드화
 - 오륙도 왕복 수영, 독도 일주수영
 - 울트라마라톤수영 시리즈(FINA 공인 UMSS) 국내 유치(전남 고흥군 팔영대교~여수시 여자도~보성군 장도~순천시 순천만갈대밭, 20km)
 - * UMSS : 15km 이상의 장거리 바다수영대회로 2019년 5개국 6개 대회 개최

- 대한민국 바다수영 리그(KSL) 창설, 프로화(경정과 연계)

2.5 바다수영으로 가꾸는 동북아시아의 해양 평화(환 동북아시아 서클수영)

- 남북 연결(백령도~장산곶), 한일해협 횡단(부산~후쿠오카), 일러 횡단(하보마이~네무로), 일본·대만 횡단(오키나와~대만), 중국해협 횡단(대만~중국), 압록강 도강(단동~신의주), 두만강 도강(소련~북한)
- 노벨평화상 추천 추진
 - * 일본 헌법수호주부모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사례

Ⅳ. 국가 지도자와 해양인이 함께하는 소프트한 해양강국 실현

1. 대통령께 바란다

- 해양 톱세일즈
- ‘바다의 날’ 행사 참석(재임기간 중 1회), 바다수영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(저도 여름휴가, 해사생도 혹한기훈련)

2.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바란다

- ‘바다수영 전국체전 정식종목화 추진 및 해양수산부 공조’ 선언, 각종 치사·기고 시 ‘바다로 열린’ 표현 상례화, 해대생 바다수영훈련 참가, 1청1 바다수영대회 개최, 장·차관 등 간부·직원 바다수영대회 참가·관전·응원 독려

3. 해양수산인에게 바란다

- ‘바다수영 전국체전 정식종목화 추진’ 주도, 각종 행사·기고·강연 시 ‘바다로 열린’ 표현 사용, 바다수영팀 육성, 시군단위 대회 개최 지원, 대회 참가·관전·응원

4. 고려대에 바란다

- 바다수영부 창설, 마라톤수영의 손기정 육성
 - * 김연아, 황영조 등 정상급 선수 스카웃에 의존하는 경향 지양

5. 고대 바다최고위 원우들에게 바란다

- 고려대 바다수영부 창설·육성 지원
- ‘바다수영 전국체전 정식종목화 추진’ 주체적 역할, 각종 기고·강연 시 ‘바다로 열린’ 표현 사용, 바다수영대회 참가·관전·응원